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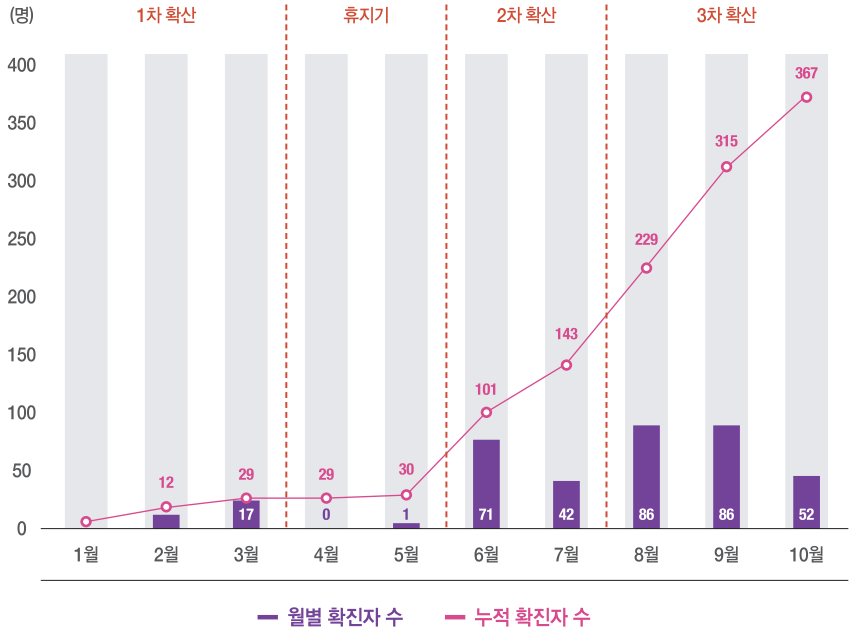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01 대전광역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현황

- 대전시는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3월 28일까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 4~5월 휴지기 이후,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코로나19 감염의 2차 확산이 시작됨
- 8월 중순부터 3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10월 15일까지 해외입국자를 제외한 대전시 거주 누적 확진자 수는 367명으로 집계됨

2020년 대전시 코로나19 월별 확진자 현황(1월 1일 ~ 10월 15일)



* 해외입국자는 제외하였으며, 국내 발생 대전시 거주 확진자만 집계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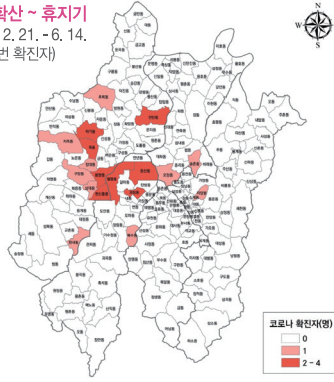
02 대전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2020년 2월 21일~10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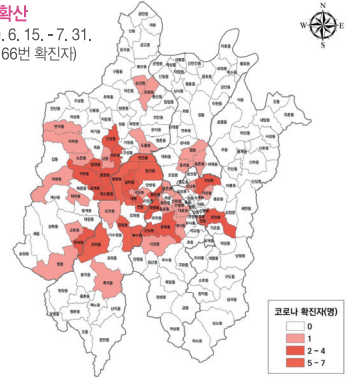
- 대전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 대전시의 전체적인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초기에는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분포 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임
 - (1차 확산 시기) 서구 둔산동을 중심으로 서구와 유성구 지역에서 확진자 발생
 - (2차 확산 시기) 서구와 유성구 외에 동구와 중구의 일부 지역까지 확산되었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
 - (3차 확산 시기) 동구 가양동과 그 주변 지역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동구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
 - 대전시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2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 둔산동과 동구 가양동 일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전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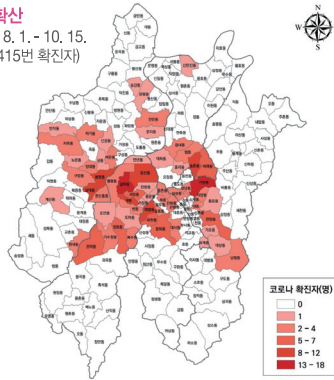
1차 확산 ~ 휴지기
2020. 2. 21. - 6. 14.
(1-44번 확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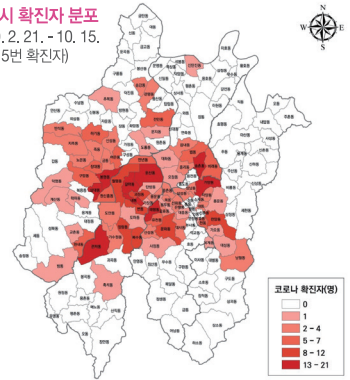
2차 확산
2020. 6. 15. - 7. 31.
(47-166번 확진자)



3차 확산
2020. 8. 1. - 10. 15.
(169-415번 확진자)



대전시 확진자 분포
2020. 2. 21. - 10. 15.
(1-415번 확진자)



* 2020년 2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확진자(거주지) 분포 현황을 지도로 나타낸 것임

** 해외입국자와 대전시 거주자가 아닌 확진자는 제외하였으며,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함

● 대전광역시 시기별 확진자 거주지 현황

시기 순위	1차 확산-휴지기 (2.21.-6.14.)	2차확산 (6.15.-7.31.)	3차확산 (8.1.-10.15.)	총 확진자 (2.21.-10.15.)
1	서구 둔산동(4)	서구 변동(7) 서구 월평동(7)	동구 기양동(18)	서구 둔산동(21)
2	서구 월평동(3) 유성구 전민동(3)	동구 천동(6) 서구 관저동(6)	서구 갈마동(14)	동구 기양동(20)
3	서구 괴정동(2) 유성구 봉명동(2) 유성구 원신흥동(2) 유성구 죽동(2) 유성구 하기동(2)	서구 둔산동(6) 서구 만년동(6) 서구 복수동(6) 서구 정림동(6)	서구 둔산동(12) 유성구 봉명동(12) 중구 태평동(12)	서구 갈마동(18)

* () 안의 수치는 확진자 수임

● 대전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군집 분석

- 대전시의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자료를 이용하여 확산 시기별로 확진자 군집지역을 분석함
- (1차 확산 시기) 서구 월평동, 유성구 봉명동 등 서구 월평동과 그 주변 지역으로 군집 패턴이 형성됨
- (2차 확산 시기) 1차 확산 시기와 마찬가지로 확진자 군집 패턴이 서구 월평동과 그 인접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그 군집이 서구와 중구 경계에 있는 지역까지 확장된 양상을 보임
- (3차 확산 시기) 서구 월평동 중심으로 군집패턴이 형성된 것뿐만 아니라, 대덕구 송촌동과 비래동에서도 군집패턴이 형성됨
- 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자료를 이용하여 대전시 전체의 확진자 군집 지역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확진자가 거주하는 군집지역은 서구 월평동과 그 인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소수의 확진자가 거주하는 군집지역은 대덕구 덕암동·상서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 대전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거주 군집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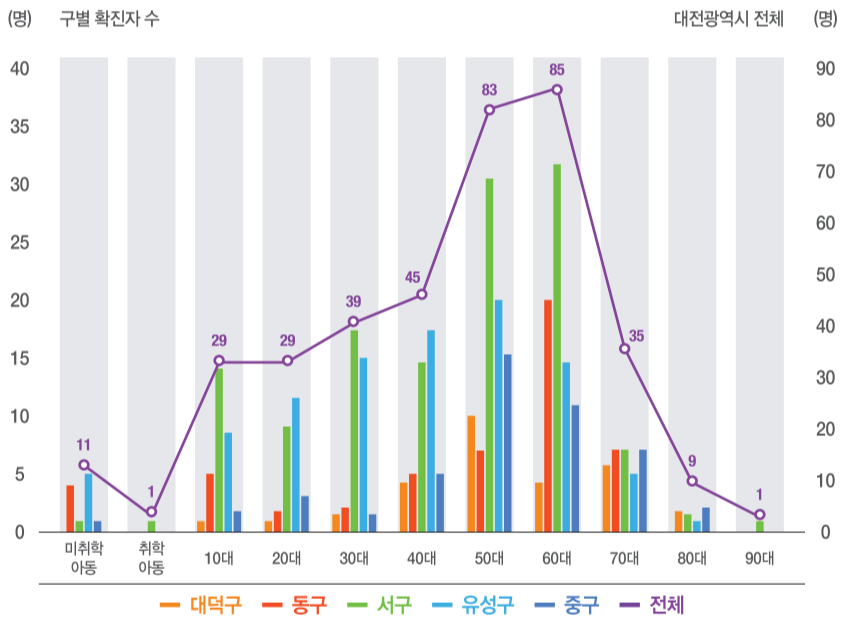
구분	1차 확산-휴지기 (2.21-6.14.)	2차확산 (6.15-7.31.)	3차확산 (8.1-10.15.)	총 확진자 (2.21-10.15.)
다수 확진자 거주 군집지역 (Hot-spot)	유성구 장대동 유성구 봉명동 유성구 상대동 유성구 원신흥동 서구 월평동 서구 둔산동	유성구 어은동 유성구 궁동 유성구 봉명동 유성구 원신흥동 유성구 원내동 서구 월평동 서구 갈마동 서구 둔산동 서구 내동 서구 괴정동 서구 용문동 서구 정림동 서구 복수동 중구 태평동 중구 산성동 중구 사정동	유성구 장대동 유성구 구암동 유성구 봉명동 유성구 원신흥동 서구 월평동 서구 갈마동 서구 내동 서구 괴정동 서구 변동 중구 태평동 중구 유천동 대덕구 송촌동 대덕구 비래동	유성구 장대동 유성구 구암동 유성구 봉명동 유성구 상대동 유성구 원신흥동 서구 월평동 서구 갈마동 서구 둔산동 서구 괴정동 서구 내동 서구 영문동 서구 변동 서구 가수원동 중구 태평동 중구 유천동 중구 산성동 대덕구 송촌동 대덕구 비래동
소수 확진자 거주 군집지역 (Cold-spot)	-	-	대덕구 신일동 중구 문창동	대덕구 신일동 대덕구 목상동 대덕구 덕암동 대덕구 상서동 대덕구 평촌동 동구 마산동

* 2020년 2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확진자의 거주지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군집분석한 결과를 표로 작성한 것임

03 대전광역시 연령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대전광역시 연령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대전시의 확진자는 전체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50~60대의 확진자가 많음
- 서구와 동구는 60대의 확진자가 많고 유성구, 중구와 대덕구는 50대의 확진자가 많음
- 50대 이상 확진자가 대전광역시 전체 확진자 수의 5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교적 중장년 층과 노년층에서 감염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대전시 거주 확진자 중 청소년인 확진자는 총 29명으로 서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법정동 기준으로는 서구 갈마동·내동·둔산동, 동구 천동, 유성구 봉명동에 많이 거주
- (청년층 확진자) 총 68명으로 유성구와 서구에 많이 거주하고, 법정동 기준으로는 유성구 봉명동·상대동·전민동, 서구 관저동·월평동에 많이 거주
- (중장년층 확진자) 총 213명으로 서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법정동 기준으로는 서구 둔산동과 갈마동, 동구 가양동에 많이 거주
- (노년층 확진자) 총 45명으로 서구와 중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법정동 기준으로는 동구 가양동, 대덕구 송촌동·법동, 중구 태평동, 서구 변동에 많이 거주

● 대전광역시 생애주기별 확진자 거주지 현황

생애주기 순위	청소년층(10대)	청년층(20-30대)	중장년층(40-60대)	노년층(70대 이상)
1	서구 갈마동(4)	유성구 봉명동(7)	서구 둔산동(15)	동구 가양동(5)
2	동구 천동(3)	서구 관저동(5)	서구 갈마동(12)	대덕구 송촌동(3)
3	서구 내동(3)	서구 월평동(5)	동구 가양동(11)	중구 태평동(3)
4	서구 둔산동(3)	유성구 상대동(4)	대덕구 송촌동(8)	서구 변동(3)
5	유성구 봉명동(3)	유성구 전민동(4)	중구 태평동(8)	대덕구 법동(3)

* 2020년 2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주지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며, 해외입국자와 실거주자가 대전시가 아닌 확진자는 제외함

*자료출처: 대전시청, 코로나 확진자 정보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9월 대전·세종 이슈 뉴스기사 분석

지금 대전·세종은? 20.9.1 - 9.30

●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리고 혁신도시, 9월의 대전

- 2020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전광역시와 관련된 충청권 언론사의 기사 3,122개의 키워드를 분석
- 9월의 대전광역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가 여전히 큰 화두였음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및 언장은 기존 계획했던 공연, 교육 프로그램, 컨퍼런스 등의 행사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데 영향을 미침



혁신 도시

- 혁신도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 특성을 살린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
-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중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가 없는 상황
-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속지구'를 혁신도시 입지 후보지로 선정
- 9월 23일로 예정되었던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안건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가 연기됨
-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심의가 열렸고 현재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됨

온라인 프로그램

-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예술, 문화,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음

대전 의료원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 대전시와 광주시, 울산시는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역단체
- 공공 병상이 부족해 30% 넘는 대전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타지역에 입원
- 현재 대전의료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정책성 등의 3개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AHP) 진행 예정

순위	키워드	빈도(회)	관련성
1	코로나19	300+	0.999
2	온라인	241	0.802
3	접촉자	59	0.196
4	부동산	57	0.19
5	감염병	57	0.19

9월 대전광역시 충청권 언론 기사 키워드 분석

● 여전히 '코로나19'와 '행정수도'가 이슈였던 9월의 세종

- 2020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충청권 언론사의 기사 934개의 키워드를 분석
- 9월의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뉴스기사는 지난 달과 동일하게 '코로나19'와 '행정수도'를 키워드로 한 기사가 많음
- 9월 한 달 동안, 세종은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등으로 인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임(전국 0.42% ↑, 세종 3.83% ↑)



여민전

- 세종시에 따르면 여민전이 출시된 지난 3월부터 추석 연휴까지 1천54억원 규모의 여민전이 발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금까지 발행액의 81.2%인 856억원이 사용
-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연말까지 여민전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
- 또한 여민전 활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당초 9월까지로 예정되었던 캐시백 10% 지급 기한 연말까지 연장

스마트 시티

- 세종국가산단은 2017년 7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
-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연서면 일대(84만평)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 5천억원을 투입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등 국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소재부품 산업 거점을 조성하여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

세종 충남대 병원

- 세종시 출범 이후 8년 만에 세종충남대병원이 세종시 지역 최초로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됨
- 세종충남대병원 지하 1층에 위치한 응급의료센터는 1인 격리실, 음압격리실, 소아 전용 병상 등 27개의 병상을 갖추었으며, 응급환자 진료 구역 2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
- 세종충남대병원이 지역 최초로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만큼 지역 내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순위	키워드	빈도(회)	관련성
1	코로나19	207	0.998
2	행정수도	128	0.617
3	온라인	67	0.323
4	국가균형발전	36	0.174
5	혁신도시	23	0.111

9월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언론 기사 키워드 분석

*자료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빅키인즈